

퀴나크리돈계안료“ 회복세 ”

미국지역 자동차수출 증가로 … 레드안료 수요 꾸준

고급 레드안료의 대명사인 퀴나크리돈계 레드안료가 94년에는 93년에 비해 비교적 건조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빨간색을 선호하는 미국시장으로 자동차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퀴나크리돈계 레드안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퀴나크리돈계안료 판매추이 (단위 : M/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판 매 량	60	68	70	77
증 감 률	15	6.2	3.2	10

특히 미국에 주로 수출되는 차의 색깔이 솔리드 계통으로 솔리드에는 레드안료의 최강자로 새로이 부상한 DPP레드안료가 분산성이 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분산력이 좋은 퀴나크리돈안료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퀴나크리돈계안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Ciba-Geigy, Hoechst, Bayer 등 독일의 다국적

기업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Ciba-Geigy와 합작한 대한스위스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시장에서 고급 레드안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Ciba-Geigy가 국내에서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Hoechst는 국내에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본의 도요잉크, 일본화학 등 안료기업들이 가격을 무기로 서서히 국내 자동차용 고급안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페인트기업들이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향후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퀴나크리돈안료의 가격은 94년에는 인상없이 Kg당 6만원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퀴나크리돈계 안료의 용도별 수요는 페인트용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플라스틱마스터배트지용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퀴나크리돈계안료의 성장률은 6~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경기가 지속적인 회복세에 있고 국내 자동차수출도 당분간 양호해 안료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레드칼라가 유행에서 밀리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레드칼라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퀴나크리돈계 레드안료의 뒤를 이어 레드안료 시장의 권좌를 넘겨받은 DPP 레드안료는 93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1/2>

